부르신 곳에서 멕시코 이지민 김예은 선교사

선교서신 <제 4호>
2022년 2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문안드립니다.

2022년 2월 16일 오전 11시, 대전 KPM 고신총회세계선교센터에서 총 5가정이 파송예배를 드렸습니다.
선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가족들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파송선교사로 첫걸음을 내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날로 저희 부부는 고신 교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파송 받은 자 되었습니다.



제71차 선교사 파송예배(가족)

파송예배 하루 전, 65기 OTC 훈련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작년 봄, 3개월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며 동고동락했던 사이였기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먼저, 사역지원국의 안내를 듣고 난 후 서약서, 유언장 등을 준비하고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행될 파송예배의 순서에 맞춰 예행연습을 하고 함께 저녁 식사하며 그동안의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이후에도 한 방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축복하는 행복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파송예배 후 각자의 선교지로 가게 되면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기에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제71차 선교사 파송예배(단체)

모든 만남과 이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가 있습니다. 파송예배 때 5가정은 '은혜'라는 찬양을 특송으로 불렀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공동체로 훈련케 하신 것도 은혜, 파송 받아 떠나는 축복, 그 헤어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파송예배를 드리고 벌써 2가정이 2월 말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도 한 가정이 선교지로 떠날 예정입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남은 2가정도 속히 선교지로 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저희 부부는 선교지로 가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면서 2월에도 성실히 협력교회와 동역자님들을 방문하며 인사드렸습니다.

2월 중순, 삼천포교회 공은성 담임목사님께서 국외선교팀 헌신예배 강사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전에는 삼천포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청장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천포 지역의 기둥과도 같은 교회로서 변함없이 순수한 모습으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삼천포교회

대전 KPM선교센터에서 파송예배를 드린 후 첫 주일예배는 제 고향교회이자 주파송교회인 이리아름다운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이 안식처가 되어준 교회에 파송선교사로 방문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인사 나누었습니다.



이리아름다운교회

2월 말, 저희 부부는 거창 고제교회와 부산 모라삼일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예배와 교제의 기쁨 속에 늘 선교를 힘써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부족하고 여전히 서투른 것 많은 젊은 선교사 부부를 온화한 미소로 환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거창 고제교회



부산 모라삼일교회

사랑하는 교회와 동역자님!
지난 서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부는 선교 사역을 위해 멕시코 종교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초, 비자 발급을 위한 추천서를 준비해서 멕시코로 보냈었는데 종교청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멕시코로 보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릴지 가늠할 순 없지만 잘 인내하며 즐겁게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손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조급해하지 않고 잘 인내케 하셔서 멕시코 선교를 위한 비자와 출국 준비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2. 파송 받아 나선 5가정의 모든 식구, 자녀들이 선교지에 잘 정착,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3. 우크라이나, 그 땅에서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소서. 그 땅의 교회와 생명을 지켜주소서.

ji5560@naver.com | 010-7106-8717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990-014706-689 KPM이지민